

# 남원형 돌봄 체계 구축 최선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대상 선정 따라... 지속적 건강관리·돌봄 지원

남원시가 지난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살던 곳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남원형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범사업은 품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입원하지 않고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일상생활,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병원 입원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원시는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 1월부터 7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자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대상자 총 3,304명을 우선돌봄 대상군으로 설정하고 돌봄 수요도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인적사항 △일상생활 기능 △주거환경 △서비스 이용현황 △특별필요도 등으로 총괄적인 돌봄에 대한 욕구를 평가하며, 1차 선별조사 시 노쇠평가에 따라 일정점수 이상



남원시가 남원형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인 대상자를 선별하여 2차 심화평가를 실시하고 심도있게 생활상태로, 오는 3월 말까지의 조사 결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 가능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돌봄통합지원법 표준조례안이 시달되는 대로 정책 시행을 위한 탄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3월 중 서비스 제공기관, 행정조직, 시민사회 등 분야별 관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는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남원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의료원, 남원시치매안심센터, 의사회, 한의사회 등 지역

내 의료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비대면 원격진료 등의 활성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거동 불편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취약한 어르신들의 의료돌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맞춤형돌봄서비스 △트렌드돌봄서비스 △식사배달지원 △방문재활 등 기존 서비스의 누락 없는 연계뿐만 아니라 △AI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확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24시간 응급 대응 시스템 운영을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 △케어안심주택 마련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 등 불편한 몸으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강식 남원시장은 "남원형 통합돌봄 모델을 한 단계씩 구축해 나가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임실교육지원청 '맞손'

### '임실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공동 대응 업무협약 체결

임실군(심민 군수)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교육지원청(유효선 교육장)이 지난 4일 교육부 공모사업인 '임실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학생 교육과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인구 소멸 지역인 임실군은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임실군과 교육지원청은 임실동 중 부지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여 관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학교 운동장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 군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소년복합시설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AI·AR/VR 체험, 코딩 SW실 등 미래 교육 체험 공간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K-밴드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 체결했다.

실, K-댄스실, 학생회의실, 동아리실 등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효선 교육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임실군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함께하는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그간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인근 상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학교 앞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교통 인프라를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공영주차장 2개소 유료화 운영

남원시는 5월부터 구 군청주차장(하정동192-4), 관왕묘 옆 주차장(양정동51-1) 2개소를 유료화한다.

무료로 운영되던 해당 주차장들은 다수의 장기 주차 차량으로 주차 공간이 상시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으로 남원시는 유료화를 통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화하고자 한다.

유료 주차장은 8시~18시는 유료이고, 점심시간(11시 30분~13시 30분)과 18시~다음날 8시까지 는 무료로 운영, 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이고 1시간 초과 시 700원(기본금 500원, 가산금 2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이 부과된다. 1일 최대 요금은 6천원이고 월정기 주차권은 면외이다.

남원시는 해당 주차장을 이용했던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 20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주차장 유료화를 홍보하였고 양정동과 죽왕동 지역 시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통문화 교류·지역축제 활성화 협력

###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울주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윤영식)와 (재)울주문화재단(대표 이춘근)이 지난 5일 전통문화 교류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통문화와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문화예술과 관광 콘텐츠 교류 △홍보와 마케팅 지원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순창과 울주 두 지역이

보유한 전통문화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문화적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 식문화 축제인 순창장류축제를 기획·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통장류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있으며, (재)울주문화재단은 국내외적으로 울산의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각자

의 전문성을 살려 전통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양측은 협약의 실질적 실행 방안으로 울주외고산공기에 순창고추장을 담아 상호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순창장류축제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청렴군민감사관과 '투명 행정' 추진

순창군이 지난 5일 군청 영성회의실에서 군민 생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군민이 직접 감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감사관들은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사항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 △군민 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 등 부당하고 위험한 사례를 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부정부패 예방과 더불어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감사 행정을 수행하며, 임기는 1년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청렴군민감사관들의 활동 실적과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행정 감사 계획과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환경개선 지원

순창군은 안전한 외식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컨설팅·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순창군에서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이며, 총 1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기존에 컨설팅을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1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순창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 및 환경개선'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는 위생수준 평가항목 사전 진단, 전문가

1:1 맞춤형 방문 컨설팅, 음식점 위생취약부분 환경개선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 컨설팅 및 환경개선을 받은 업소는 올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증명서 발급 △교부 △위생등급 지정기간 동안 위생점검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제35보병사단과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임실군과 제35보병사단이 상호 간의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발전을 협력하기 위해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진관 부군수와 관련 부서장, 35사단 참모들이 참석하여 상생발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매년 2차례 정기 회의를 갖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신병교육대에 주차장 포장, 군부대 주변 시설 정비, 재난 발생 시 대민 지원 등 1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진관 부군수는 "임실군에 35사단



군부대 이전 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가 높다"며 "군부대 애로사항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